

#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김양식\*

1. 머리말
2.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정부 대응
3. 홍주성전투 이후 정부 및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4.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 9월 이후 충남지역 동학농민전쟁은 크게 목천을 중심으로 한 충남 북부권, 홍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부 내포권,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 동부권,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동남부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권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으나, 새로운 사료 발굴과 기존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

\*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끊임없이 새 사실이 규명되고 있으며 『甲午軍政實記』가 그 하나이다.

『갑오군정실기』는 대한제국기 이토히로부미가 불법 반출한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국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1894년 9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던 정부군 총사령부인 양호도순무영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지역 사례를 말해주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sup>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 2016년에 10책 모음을 번역한 뒤 그것을 토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적인 가치와 향후 활용방향을 모색한 바가 있다.<sup>2)</sup>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동향에 관해서도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이 『갑오군정실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새 기록은 동학농민군 진압군의 지휘체계, 각 진영간의 소통과 갈등, 동학농민군 진압 실상 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 많이 활용된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도 일본군의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이들 일본측 기록은 일본군의 진압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sup>3)</sup> 다만, 기존 연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주로

- 1) 신영우·박상국, 「갑오군정실기의 발견 경위와 주요 내용」,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전쟁의 재인식』, 2016년 동학농민전쟁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전쟁기념재단, 2016.10.
- 2) 위 학술대회 참조. 본 논문 역시 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갑오군정실기에 나타난 충남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편, 『내포의 동학』, 충청남도, 2015; 박성묵, 『禮山東學革命

다루었을 뿐 전쟁의 상대인 진압군을 중심으로 접근한 글은 거의 없다.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압군 입장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894년 9월부터 격화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세력은 홍주성 관군,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장위영군),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서로중대, 일본군 인천병참부에 주둔해 있던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 등이었다. 이들 부대는 상호 연계하여, 또는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발굴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새롭게 연구하되,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의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과정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 2.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정부 대응

### 가. 청일전쟁 이전 내포지역 동학도 동향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고창 무장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전쟁은 온 세상을 동학의 열기로 뒤덮었다. 전라도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동학농민군이 승리하였다는 봄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다투어 동학에 들어가도록 부채질하였다.

---

史』,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7; 신영우, 「내포 일대의 갑오년 상황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학보』 제29호, 동학학회, 2013; 임형진, 「내포지역의 동학유입 경로와 조지고하 과정」, 『동학학보』 제29호, 동학학회, 2013; 채길순, 「충청남도 서북지역의 동학혁명사 연구」, 『동학학보』 제17호, 동학학회, 2009; 성주현, 「박인호계의 동학혁명과 그 이후 동향」, 『동학학보』 제17호, 동학학회, 2009; 이진영, 「忠淸道 內浦地域의 동학농민전쟁 전개양상과 특성」, 『동학연구』 제14-15호, 동학학회, 2003.

이는 충남 내포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2월부터 내포지역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2월 6일 덕산에서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있었다. 그 동안 합덕저수지 개간과 수세 부과로 수탈을 일삼던 李廷珪를 처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정규는 전에 덕산군수와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인물인데, 수세 외에 주민들의 농토와 우마, 심지어 어망과 배를 빼앗기도 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나성퇴 주도로 모인 수천 명의 농민들은 이정규의 집을 비롯한 12호를 불태웠다. 덕산 농민봉기를 주도한 나성퇴 등은 동학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덕산 농민봉기 소식은 내포지역 곳곳에 전해졌다. 이는 내포지역 민심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전라도에서 1월 10일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가 계기가 되어 3월 20일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되었 듯이, 내포지역은 덕산 농민봉기를 계기로 동학이 크게 확산되어 혁명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동학에 가입한 이웃 사람들이 늘어나 있었는데, 당시 서산에 살았던 洪鍾植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갑오년 2월 초여드렛날 입도하였습니다. 내가 입도한 지 불과 며칠에 전지문지하여 동학의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하루에 몇십 명씩 입도를 하곤 했습니다. 마치 봄잔디에 불붙듯이 布德이 어찌도 잘 되는지 불과 1, 2삭 안에 서산 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시운이 번복하는 까닭이요, 만민 평등을 표방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 온갖 하층 계급은 물밀 듯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구나 때마침 전라도 등지에서 동학군이 승승장구한다는 기쁜 소식이 때로 올라 뻗치니 누가 기운이 아니 나겠습니까.<sup>4)</sup>

이렇게 갑오년 봄은 한 마디로 동학 세상이 되었다. 반대로 동학을 싫어하는 사람에겐 ‘난리’가 난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늘

4) 洪鍾植, 「동학과 동학란」, 『신인간』 34호, 1929.

처럼 대하는 동학,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서로서로를 돕는 동학에 앞다투어 들어왔다. 덕산과 예산 일대는 이미 주민 절반이 동학도였다. 이들은 모임을 할 때 징이나 종 같은 것을 쳐 모였다. 설령 동학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동학을 바라보는 민심은 매우 좋았다.

이러한 동학 열기는 4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동학교단을 이끄는 최시형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4월 초순에 충남 진산·이인·회덕·목천과 충북 옥천·청산·보은 등지에도 동학도들이 집결해 있었다. 충청도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활동하였으나, 지방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내포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4월 9일에는 동학을 음해하고 재물을 수탈하던 서산의 李進士를 혼내준 사건이 있었다. 내포지역 동학도들은 통문을 돌려 홍주 원벌(현 서산군 운산면 원평)에 집결한 뒤 4월 10일 개심사로 이동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진사는 그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개심사에 머물러 있는 동학도들에게 달려와 백배 사죄하였는데, 동학도들은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면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金允植은 이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제 동학도 백여 명이 원평마을에 와서 자고 오늘 개심사로 가는 동학도들이 끊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보현동 이진사가 평소 동학을 심하게 배척하여 동학도들이 원한을 품고 개심사에 모여 회의를 한 뒤 그 집을 부스려 한다. 내포에는 동학도가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가득 차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역시 시운이라 매우 통탄스럽다.<sup>5)</sup>

이와 같이 내포지역 동학은 날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동안 묶고 쌓

5) 金允植, 『續陰晴史』. 이 책은 김윤식(1835-1922)이 1887년부터 1921년까지 쓴 일기책 18권 2책으로, 그 가운데 1-7권은 면천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용으로 갑오년 당시 면천을 비롯한 내포지역 동학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인 폐단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가고 있었다. 실제 그 무렵 내포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은 내포 주민 절반 이상이 동학도였고, 동학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5월에 들어와 충청도지역은 전라도와는 달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내포지역 동학도들도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며 시국을 관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도들을 크게 자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었다.

#### 나. 청일전쟁 발발 이후 내포지역 동학도 동향

충남 내포지역은 6월 23일 아산만 앞바다 풍도에서 벌어진 청일 양국 군함의 해전과, 뒤이어 6월 27일 일어난 성환전투로 인해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었다. 더욱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내포지역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청군군을 추격하면서 민간은 물론 관공서까지 침범하여 폐해를 끼쳤다.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은 아산현감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6월 27일(양력 7월 29일) 오시 무렵에 몇 천 명인지 알 수 없는 일본군이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기마대와 함께 혹은 성환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혹은 백석포에서 출발하여, 일시에 갑자기 빠르게 진격하기도 하고, 혹은 객사에 주둔하거나, 혹은 사면으로 산관에 주둔하면서 사직을 불태웠습니다. 이어서 인가와 각각의 관청건물 등에 들어가 남아 있는 돈과 곡식 및 여러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각종 장부들도 모두 불에 타고 찢겨졌습니다. 도로의 민가와 의복, 그릇, 여러 물건들이 부서지고 찢겨졌고, 뒤져서 가져간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위협하고 능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와 백성 사이에서 남녀노소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로 따라서 울부짖으며, 모두가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sup>6)</sup>

6) 이현영, 『錦藩集略』別啓, 갑오 7월 초 3일조.

이와 같이 일본군의 행패는 심각하였다. 일본군은 각종 문서들을 불태우고 각종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청국군과 일본군이 쫓기고 쫓는 과정에서 내포지역이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대책을 숙의하였다. 동학도들 역시 곳곳에서 집결하여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행동으로 나설 태세였다.

그로 인해 7월에 들어와서는 다시 동학교세가 날로 확대되었다. 충북의 보은과 충남의 공주 등 다른 충청도지역도 마찬가지였으나, 청일전쟁을 직접 목도하여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내포지역은 민심이 더욱 동요하고 동학도들이 다시 봉기하였다. 동학도들이 없는 날이 없고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들은 반일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보국안민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태세였다.<sup>7)</sup>

더욱이 6월 하순부터 전라도에서 무장한 동학도들이 금강을 건너 충남 서남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 6월 29일 동학농민군 20여 명이 혹은 총과 말을 지니고 혹은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전라도 성당에서 충남 임천으로 넘어와 임천군 작정에 난입하였고, 7월 1일에는 전라도 부안에서 온 동학도 57명이 서천군 관아에 들어가 무기와 식량을 가져간 일이 있었다.<sup>8)</sup> 이들이 진짜 동학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갑오년 7월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이런 실정에서 내포지역은 거의 모두 동학의 세상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내포지역의 중심지였던 홍주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대거 동학에 가입하였고, 심지어 아전들도 절반 이상 동학에 입도하여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없었다. 밤낮으로 동학 주문 소리가 마을마다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를 목격한 홍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sup>9)</sup>

7) 신영우, 앞의 논문, 2013 및 「충청감사와 갑오년의 충청도 상황」, 『동학학보』 34, 동학학회, 2015, 203-220쪽 참조.

8) 이현영, 『錦藩集略』 別啓, 갑오 7월 7일조.

7월 7일 내가 비어 있는 관아에 있었는데, 밤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시끄러운 것이 파리 같기도 하고, 무당이 경 읽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그 소리는 장시 거리에서부터 성 밖의 마을에까지 가득 하여,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 소리는 밤새 끊이지 않았다. 매우 이상하여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동학 주문을 외우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소리는 밤마다 점점 더 심해져 吏校와 奴舍 같은 자들도 감염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홍주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른 내포 동학도들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주 대교에 살다 7월 24일 ‘동학 난리’를 피해 면천으로 이주한 뒤 인근 지역을 다니며 동학 활동을 목격한 김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저들은 스스로 왜와 서양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매일 무기를 지니고 동쪽의 가옥에서 무리를 짓지 않으면 서쪽 동네에서 작당을 하여 국법과 왕장을 무시하고 방백과 수령을 도외시하였다. 저들 중에 만약 산송이나 채무 혹은 자질구레하게 원한을 갚을 일 등이 있으면 저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하였다. 심지어는 사대부를 묶어놓고 형을 가하기도 하고,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고, 채무를 강제로 받아내고, 근거 없이 강제로 돈을 징수하고, 유부녀를 강제로 겁탈하였다. 양반가의 노비들은 그들의 노비문서를 탈취하고 상전을 옥보인 뒤에 떠나갔다. 부자들의 돈과 곡식을 빼앗고, 남의 소와 말을 가져갔다. 저들이 갚아야 할 물건들은 모두 탕감하여 준다는 증서를 강제로 받아내었다. 반상, 노소, 귀천, 친소, 선악을 구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내포지역 갑오년 여름은 이미 동학의 세상이었다. 지방관들의 통치권과 행정력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서해안 뱃길도 거의

9) 洪健, 『洪陽紀事』, 7월 7일조.

10) 『大橋金氏家 甲午避亂錄』. 이 책은 충남 공주 근처 대교에 살던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기록기간은 1894년 7월부터 1895년 3월까지 갑오년 당시 충남 서부 내포지역의 동학도 동향을 소상히 알 수 있다.

모두 동학도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자 정부에서 특별히 선별하여 4월에 파견한 홍주목사 李勝宇는 洪健과 상의하여 치안질서를 복구하고 동학도들을 해산할 목적으로 여러 방책을 사용하였다. 먼저 7월 13일 아전과 官奴 및 使令들을 불러모은 뒤 일시적인 잘못으로 동학에 들어간 것을 타이른 뒤, 식량과 급료를 줄 터이니 동학을 탈퇴하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마을에서 현명한 선비와 호걸들을 선출하여 인솔하게 하고, 鎭府에서 교졸 100여 명을 뽑아 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還米와 봉하여 둔 稅錢을 내어 월급으로 주었다. 또한 성 아래 4개 마을에 명하여 5가를 1통으로 하는 오가작통법을 통해 수상한 자를 정찰하고 근심과 어려운 일은 가서 서로 돕게 하였다. 창고를 열어 빈곤한 자를 구제하고 거리와 시장에 방(榜)을 내걸어 마을에 명령을 선포하여, 저들 가운데 폐약을 행하는 자는 바로 잡아들이게 하였다. 만약 그 폐거리들이 많아 잡기 어려우면 바로 달려와 보고하도록 일일이 조약을 정하였다.”<sup>11)</sup>

실제 홍주목사는 장정을 모아 군사력을 갖추는 한편 불량한 동학도들을 잡아다 혼내주고 세금을 연기하거나 탕감하여 민심을 달랬다. 더욱이 8월 6일 정부에서 宣撫使로 파견한 鄭敬源이 홍주에 와서, 경내의 동학 접주들을 불러모아 직접 윤음을 읽고 효유하였다. 이때 모인 동학도들이 무려 2~3만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인솔한 지도자급 동학 접주들은 홍주의 金永弼·丁大哲·李漢奎·鄭元甲·羅成蕾, 덕산의 李春實, 예산의 朴德七·朴道一, 대흥의 俞致教, 보령의 李源百, 남포의 秋鏞成, 정산의 金基昌, 면천의 李昌求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을 거느린 인물은 면천의 이창구였는데, 무려 5,6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sup>12)</sup>

11) 洪健, 『洪陽紀事』, 7월 13일조.

12) 洪健, 『洪陽紀事』, 8월 6일조.

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집강으로 임명된 대접주들이었다. 7월 15일 공주 감영에 도착한 선무사 정경원은 하루가 다르게 세력이 확대되는 동학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시형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로 執綱을 임명하도록 하였다.<sup>13)</sup> 이는 전라도에서 집강소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고 시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홍주목사의 동학 진정책과 선유사의 효유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일본에 의한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위기감이 팽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수십 수백년 동안 묶고 쌓인 사회경제적 모순과 부조리가 동학의 힘을 빌어 터져나오면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적 열망과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실제 홍건은 8월 19일 홍주성 동문 밖에 나가 보고,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東門 밖에 나가보니 10리의 길에 행렬이 가득 이어졌는데, 모두 비도들이었다. 어떤 이는 살찐 큰 말을 타고 제멋대로 달려서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였고, 길을 걷는 자들은 팔을 흔들고 활보하여 곁에 사람이 없는 듯이 매우 날뛰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喪服을 입고 큰 노새를 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큰 말을 타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짐을 실은 말 1필이 있었는데 돈을 가득 싣고 따르고 있었다. 그가 이창구라고 하는 자인데, 지금 崔賊, 최시형을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예산 신례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점포의 사내놈이 둘러앉아 주문을 암송하였는데 밤새 그치지 않았다. 그 사내의 아녀자도 어지럽게 암송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사악한 도가 사람을 미혹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와 같도다!<sup>14)</sup>

이와 같이 점점 더 내포지역은 동학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동학의 최고 지도자 최시형도 동학도들의 불법행동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동학도들의 열기와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9월초 대원군 명의

13) 洪健, 『洪陽紀事』, 7월 20일조.

14) 洪健, 『洪陽紀事』, 8월 19일조.

로 된 효유문도 효과가 없었으며, 9월 14일 別諭官 金慶濟가 홍주 관아 동학 접주들을 모아놓고 타일렀어도 그뿐이었다. 서울로 보내는 稅米도 뱃길이 여의치 않아 9월 14일 일부만을 보냈을 뿐이며, 홍주 西倉에 쌓아 둔 세미 수백석은 동학도들이 가져갔을 정도이다.<sup>15)</sup>

그래서 홍주목사를 도와 내포지역 동학의 열기를 잠재우려 하였던 홍진은 “조정의 선유를 거듭 반복하고 蠶邑의 慰撫가 있었으나, 세찬 불길은 끝내 그치게 할 수 없었고 거침없는 물길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탄식하였다.<sup>16)</sup> 그러자 홍주목에서는 감옥에 가두었던 동학도 2명(광천시장 상인 정원갑과 갈산 농민 이한규)을 때려 죽여서 본보기 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으로도 동학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다.

#### 다.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9월 기포

내포지역 동학도 역시 최시형의 기포령에 따라 9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기포하였다. 내포지역에서는 朴寅浩와 朴熙寅(朴德七)의 지휘 아래 신창의 김경삼·곽원·정태영, 덕산의 이종호·최병현, 당진의 박용대·김현구, 서산의 장세화, 안면도의 주병도·최동민, 태안의 김병두, 홍성의 김주열·한규복, 면천의 이창구, 남포의 추용성 등이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은 서산과 태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서산군수 朴鎭基와 태안군수 申百熙, 별유관 김경제는 서산과 태안, 해미 등지에서 체포한 30여 명의 접주 등을 10월 1일 서산 관아에서 모두 처형할 계획이었다. 동학도들이 봉기할 조짐이 보이자 먼저 이들을 처단하려고 한 것이다.

15) 洪健, 『洪陽紀事』, 9월 14일조.

16) 洪健, 『洪陽紀事』, 9월 23일조.

그 무렵 마침 최시형으로부터 기포하라는 통문이 9월 그믐경 오후 3,4시에 도착하였다. 통문을 받은 내포지역 동학도들은 두 경로를 통해 기포하였다. 하나는 내포 서부지역인 서산, 태안, 해미 등지는 박덕철의 禮包에서, 내포 동부지역인 아산, 예산, 덕산, 신창 등지는 박인호의 德包에서 각각 9월 그믐 자정을 넘기면서 기포하였다. 즉, 10월 1일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무장봉기를 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정식으로 기포하기는 10월 1일(양력 10월 29일)입니다. 9월 28일에 상부로부터 통문이 왔는데, 보니까 10월 1일 오정으로서 일제히 서산 읍내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되 일제히 농기와 농악을 가지고 총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칼이 있으면 칼을 가지고 총칼이 없으면 죽창이라도 깎아들고 바랑에다가 사흘 먹을 음식을 해서 지고 의복을 튼튼히 입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동원령이었습니다.<sup>17)</sup>

그러자 태안군수는 10월 1일 동학 접주 5명을 체포하여 효유한 뒤 풀어주었다. 이는 동학농민군을 자극하였다. 태안 동학농민군 1만여명은 10월 2일(양력 10월 29일) 새벽 각자 총과 창을 소지하고 관아에 돌입하여 불태운 뒤 마을 곳곳을 수색하여, 아전 김원섭의 집에 숨은 태안군수 신백희와 별유관 김경제를 찾아내 처단하였다.

서산에서도 10월 1일에 기포하였다. 새벽에 집결한 예포 동학농민군은 관아를 습격, 군수를 처단하고 수감된 30여 명의 동학도들을 모두 구출하였다. 그런 다음 해미로 진출하여 읍내를 점령하였다. 10월 2일에는 예산으로 이동하여 목소리(목시, 현 예산군 삼교읍 성리)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10일간 머무르며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그 무렵 대접주 박인호가 이끄는 덕포 동학도들은 이종율, 최병현, 최동신 등의 접주들 주도로 덕산 구만리에 집결하였다. 박인호는 기

17) 홍종식, 「동학란 실화」, 『나라사랑』 제15집, 외솔회, 1974.

포 당시 동학교인 한 집에서 한 사람씩만 참가하라고 지시하였지만,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참가하였고 총을 가지고 있던 사냥꾼까지 참가해 1만 6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먼저 10월 5일 아산 관아를 공격하여 무기 등 군수물자를 확보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신창으로 이동하여 머물렀다 당진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각각 기포한 예포와 덕포 동학농민군은 태안, 서산, 해미, 예산, 덕산, 신창 등 10여 군현을 점령하고 군수물자를 비축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다. 이들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는 덕포의 박인호(혹은 박도일)와 예포의 박희인(혹은 박덕철)이었다. 이들은 태안과 서산 관아를 점령한 뒤 예산 삼교 북쪽 목소리와 덕산에 대도소를 두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 여러 고을에서도 동학농민군들이 봉기하였다.

결성에서는 동학군 수천 명이 현청을 부수고 현감을 구타하였다. 이들은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홍주로 향하였다. 10월 4일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은 당진 관아에 쳐들어와 무기 등을 탈취해 면천으로 향하였으며,<sup>18)</sup> 10월 5일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은 결성현 관아를 습격하여 兵符와 무기 등을 빼앗아 홍주로 향하였다. 아산에서도 같은 날 저녁 관아를 습격하여 현감을 구타하고 무기를 빼앗아 갔다.<sup>19)</sup> 10월 7일 면천 접주 이창구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을 이끌고 보령으로 이동하여 水營을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들은 포를 쏘고 소리를 지르며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水使 등을 제압한 뒤 무기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무기와 화약 등을 모두 빼앗아 곧바로 결성, 광천으로 향하였다.<sup>20)</sup> 10월 11일에는 동학농민군 수천명이 석성 관아를 습격하여 현감을 구타하고 무기 등을 빼앗아 갔다.<sup>21)</sup> 이들은 군량미와 무기를 몰수하여 각

18)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4일조.

19)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3일조.

20)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7일조.

21)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7일조.

도소에 비축하는 동시에, 인근 부호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백미와 소금 등을 비축하였다. 이를 직접 목격한 홍건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각처의 동도가 崔翹, 최시형의 지휘라고 하며 도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났고 곳곳마다 지령이처럼 이어졌다..... 해마예산덕산 등의 고을에서는 군기를 모두 빼앗겼다. 해미성, 덕산, 대천, 예산, 목시(木市) 등지에서 陣勢를 이루어 그 무리를 나누어 보내 노점을 지켰다가 행인을 잡아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데려갔다. 서울 양반들이 가진 농장에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실은 배가 미처 떠나지 못한 것을 모두 빼앗아 쌓아두었는데, 마치 산과 같았다. 소, 말, 종이, 무명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갑오년 10월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서산 관아를 점령한 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군수물자를 비축하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홍주성을 제외한 내포지역 거의 모든 고을이 동학농민군의 세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내포지역에서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은 홍주성은 동학농민군의 큰 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기포 초기부터 홍주성을 점령할 기회를 엿보았다.

## 라. 정부의 진압과 동학농민군 대응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크게 일어나자,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먼저 순무영은 9월 28일 고종의 재가를 받아 강화 沁營 병정 200명을 바닷길을 따라 충남 은진과 노성 등지로 파견할 계획이었다. 순무영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화 진무영군을 홍주로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10월 7일 다시 예산과 공주방면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sup>23)</sup> 혼신을 빚고 있었다.

22) 洪健, 『洪陽紀事』, 10월 3일조.

23)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7일조.

그 무렵 정부는 9월 22일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최고 군사지휘부인 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하는 등 중앙정부군을 동원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더욱이 정부는 9월 21일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일본군을 파견하겠다는 일본의 제의를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록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격심하였을지라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에 따라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은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내포지역 관군과 민보군(유회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한 것은 7월부터 동학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홍주목사 이승우였다. 10월 8일자로 湖湖討討使에 임명된 이승우는 홍주 유림들을 독려하여 儒契를 조직하는 한편, 10월 3일부터 관병을 모집하여 다섯 진영으로 재편하고 보부상, 유회, 농보 등을 총동원하여 방어책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軍制도 제정하여 홍주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나갔다.<sup>24)</sup>

드디어 홍주목사 이승우는 10월 8일부터 관군을 파견하여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10월 8일 홍주목사 이승우는 관군 300명을 파견하여 보령 수영을 점령하였던 동학농민군 1천여명을 광천시장에서 격파하였다. 이 접전에서 동학농민군은 수십 명이 희생되었고 9명이 체포되었으며, 수영에서 탈취한 상당수의 무기를 빼앗겼다.<sup>25)</sup> 뒤이어 10월 11일 이른 새벽 관군 500명을 선발하여 예산 목소리를 습격하여 승리하였다.<sup>26)</sup> 이에 대해 홍진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4) 洪健, 『洪陽紀事』, 10월 3일조.

25)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일조. 洪健, 『洪陽紀事』(10월 초8일조)에는 광천시장을 습격한 관군이 260명, 동학농민군이 수백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甲午軍政實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 洪健, 『洪陽紀事』, 10월 11일조; 『甲午軍政實記』, 11월 1일조. 『甲午軍政實記』에는 관군이 농민군을 공격한 시각이 10월 10일 3경으로 되어 있다.

새벽에 각 陣에서 긴장하고 용감한 군사 500명을 뽑아 밥을 먹고 장비를 갖추어 중군 김병돈이 인솔해 가서 목시의 적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 날 새벽에 짙은 안개가 들에 가득하여 지척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관군이 목시에 도착하니 적들이 모두 營壘를 비우고 민가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관군은 혹시 계략이 있을 것을 의심하여 나가지 못하고, 먼저 큰소리를 지르고 화포를 쏘아 위세를 드러내었다. 적들이 갑자기 화포소리를 듣고 조수가 빠지는 것처럼 흩어져서 포구를 따라 도망을 쳤다. 관군도 추격을 할 수가 없어 그 군기와 말 등을 거두어서 돌아왔다.<sup>27)</sup>

이렇게 동학농민군 진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홍주목사 이승우는 10월 6일자로 정부에 급히 보고하기를, 태안과 서산을 먼저 수비해야 하며 홍주도 단숨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 적극 진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무대신 김윤식 역시 태안과 서산을 먼저 수비해야 하며 홍주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는 10월 6일자 충청감사의 보고를 토대로 호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속히 일본군을 파견해달라고 일본공사관에 요청하였다.<sup>28)</sup> 10월 25일에도 김윤식은 내포지역이 국가에 필요한 곡물 생산과 운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동학농민군을 조속히 진압해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였다.<sup>29)</sup>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내포지역보다 더 위기가 가중된 곳은 공주 감영이었다. 남북접 동학농민군이 10월 14일 전후로 공주감영 점령을 위해 논산 등지에 집결하자, 충청감사 박제순은 정부를 비롯해 선봉장 이규태 등에게 지원 요청하였다. 시시각각 공주감영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주감영의 방어가 시급하였다. 한 예로 정부는 10월 11일 안성 전군수 성하영을 서산군수로 임명한 뒤 경리청 병정 1소대를 보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으나, 10월 15일 순무영에서

27) 洪健, 『洪陽紀事』, 10월 11일조.

28)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호서동학도로 인한 일본군 지원 요청', 148-149쪽.

29)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내포동학당의 조속한 처리 청원', 169쪽.

는 공주의 위급함을 들어 성하영으로 하여금 공주로 가도록 하였다.<sup>30)</sup> 공주가 위기에 처하자, 일본군은 물론 정부군 역시 최대한 군사력을 공주로 집중 이동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을 홍주목사 겸 초토사 이승우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0월 24일경 이승우에게 諭書와 斧鉞을 보내, 필요한 군대와 인재를 재량껏 활용하는 재량권과 군사지휘권을 주어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다.<sup>31)</sup> 일본군 역시 동학농민군 포위전략에 따라, 아카마츠(赤松國封) 소위가 이끄는 서로군 1개 소대(2개 분대) 87명과 정부군 43명으로 구성된 진압군이 이미 10월 17일 경기도 진위현에서 내포지역으로 출발하여 평택→아산→신창을 거쳐 10월 22일 예산에 도착하였다. 그에 따라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은 홍주목사 이승우가 이끄는 관군과 일본군이 맡게 되었다.

그 무렵 동학농민군은 10월 8일부터 본격화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예포와 덕포 모두 수 차례 패하였고 이창구마저 효수되어 잠시 위축되었으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군사력에 밀린 예포와 덕포 동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 서로 힘을 합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두 진영은 10월 20일경 태안군 동면 역촌리에서 합류한 뒤 東徒大陣所를 설치하고 연합부대를 구성하였다. 그 숫자가 10만을 헤아릴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농민군과 진압군 사이의 대회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10월 22일에는 그 동안 강경한 활동을 주도하였던 면천 대접주 이창구가 홍주목사 이승우의 꼬임에 넘어가 사로잡혀 목이 잘리었다.<sup>32)</sup> 이것은 동학농민군에게 큰 위기였다. 게다가 일본군마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30)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12·15일조.

31) 『甲午軍政實記』 2권, 10월 24일조.

32) 洪健, 『洪陽紀事』, 10월 22일조;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일조.

일본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한 덕포, 예포 및 아산의 안교선 대접주는 태안 동도대진소에 모여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때는 전라도 전봉준과 충청도의 손병희가 논산에서 합진하여 공주성 공략을 위해 서서히 북상하던 무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태안에 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군대를 움직여 10월 23일 해미 귀밀리에서 하룻밤을 잤다. 다음날 여미벌에서 진을 치고 있던 중 관군과 민보군의 습격을 받았으나, 이를 크게 물리치고 오후에 면천 승전곡으로 이동하였다.

드디어 10월 24일 오후 4시경 면천 승전곡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이끄는 진압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군은 지세의 협준함을 알지 못하고 험하고 막힌 승전곡에 급히 들어갔으나, 승전곡 양쪽에 매복해 있던 동학농민군에게 포위되었다. 동학농민군은 산 위에서 총을 쏘고 서풍이 부는 것을 이용해 화공을 감행하였다. 다행히 일본군은 포위를 뚫고 새벽에 홍주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소 5마리와 배낭 78개, 상하 겨울내의 78벌, 유대식량 312식분, 日袋 78개, 군대수첩 78개, 구두 78켤레 등을 빼앗겼다.

동학농민군의 화려한 승리로 끝난 승전곡전투는 일본군에겐 첫 패배였다. 당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박인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날 저녁 기슭에 동학군단은 면천 승전곡을 닦았을 때 관군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내가 기병한 동학군의 제1회 접전이었소. 선봉 척후가 관군이 행군해 오는 보고하니, 우리는 승전곡 양산으로 올라가 복병을 하고 있었소. 관군이 골짜기 속으로 몰려들어왔소. 관군이 골짜기를 들어서자 우리는 곧 전투를 일으켜 교전 1시간여에 관군을 여지없이 대파하니, 동학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충천하였소.<sup>33)</sup>

33)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승전곡전투는 위축된 동학농민군 사기를 북돋았다. 동학농민군은 면천읍에서 하룻밤을 잔 뒤 25일 덕산 구만리로 이동하였다. 이때 홍주성에서 파견된 관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물리치고, 26일 예산 신레원 뒤뜰 관작리에 도착하였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농민군들도 속속 신레원으로 와 합류하였다. 약 3km에 걸쳐 벧짚을 이용한 초막이 세워졌으며, 그 수효가 약 5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sup>34)</sup>

그 무렵 홍주성으로 피신한 일본군 진압부대는 겁을 먹고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다.<sup>35)</sup> 그래서 홍주목사는 26일 새벽 관군 600명을 선발하여 군관 金秉喙과 이창욱으로 하여금 인솔하게 하고 민보군 3천명도 함께 신레원으로 출정시켰다. 이들은 예산 관군·민보군과 합세할 전략이었으나, 동학농민군의 선제 포위공격을 받아 차례로 무너졌다. 그동안 앞장 서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던 중군 김병돈을 비롯해 37명의 군졸과 여러 명의 유생이 죽거나 부상하였다.<sup>36)</sup> 신레원전투는 내포지역 최고의 동학농민군 승리였다. 당시 현장에서 동학농민군을 지휘하였던 덕포 대접주 박인호는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다.

예산 신레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제3차로 관군을 만났는데, 이 관군은 홍성 이승우가 관군 재패의 소식을 듣고 내보낸 정예이었고, 관군은 예산산성에 진을 치고 대포를 묻고 동학군을 격파시킬 준비에 급급하였으나, 동학군은 관군이 산성에 매복한 것을 그대로 산성을 열 겁 스무겁 에워싸고 습격을 하였소.

그런데 선봉에 올라가는 것은 火砲軍(총 가진 동학군)이 아니고 어린아이

34)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35) 洪健, 『洪陽紀事』, 10월 25·26일조.

36)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0일조; 洪健, 『洪陽紀事』, 10월 26일조. 그동안 예산 신레원전투는 10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월 26일 새벽이 올바르다.

(소년)들이었소. 그때 말로 道童(紅衣將軍)이었소. 관군이 물어놓은 대포를 쓸 겨를도 없이 습격을 당하여 그대로 패주하기 시작하였고 이 싸움에 중군 대장으로 나왔던 金秉敦이 전사를 하였소.<sup>37)</sup>

이와 같이 신례원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큰 승리로 끝났다. 그에 따라 홍주성은 큰 위기의식이 감돌게 되었다. 그동안 앞장 서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섰던 중군 김병돈을 비롯해 10여 명이 붙잡혀 죽자, 홍주성은 크게 술렁이었다. 홍주성에서 이 광경은 지켜본 홍건은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르자 홍주성 안이 두려움에 떨었고 싸움에서 전사한 자들의 가족들이 달려와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sup>38)</sup>

특히 신례원전투 이후 홍의 소년이 홀연히 나타나 전투를 이끌었다는 소문, 주막 할멈이 대포에 물을 부어 동학군이 승리하였다는 소문 등이 나돌면서 더욱더 홍주성은 불안한 기운에 휩싸였다. 반대로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 3. 홍주성전투 이후 정부 및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 가. 홍주성전투 전개과정

예산 신례원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예산을 점령한 뒤 27일 역촌 뒤뜰에서 머물렀다. 이날 박인호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서울로 바로 진격할 것인지, 아니면 홍주성을 점령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서울로 직향할 경우 후미를 공격당할 수 있다는 중

37)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38) 洪健, 『洪陽紀事』, 10월 26일조.

의에 따라, 홍주성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홍주성은 동학농민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홍주목사 이승우는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는 7월부터 체계적으로 성벽을 쌓고, 군대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주민들을 조직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특히 10월 8일 호연초토사로 임명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진압에 나섰다. 그 때문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후방 안전을 위해서 홍주성을 점령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논산에 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 남북접 연합군도 공주 점령을 위해 10월 21일경 논산을 출발하여 10월 23일부터 곳곳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그런 만큼 후방과 측면 안전을 위해 홍주성을 서둘러 점령해야만 하였다.

드디어 동학농민군은 홍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10월 27일 예산 역촌을 출발하여 28일 덕산을 거쳐 홍주로 향하였다. 이를 바라본 홍건은 “산과 들을 뒤덮은 것은 모두 동학농민군들의 기운이었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여 수십리에 걸쳐 있었다. 오시쯤에 동학농민군의 깃발 하나가 바람에 날리며 달려갔는데, 바로 덕산을 거쳐 길게 이어져서 홍주로 향하였다.”이라고 하였다.<sup>39)</sup>

동학농민군은 홍주 적현에 이르러, 부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간동으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홍주성 서문으로 향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홍주성 동서 양쪽의 산에서 진영을 갖추었는데, 마치 새의 날개와 같았다.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홍주성 점령전략을 놓고 논의하였다. 박인호는 성을 3, 4일 포위한 후 항복을 받는 방안을, 박덕철은 성을 넘어가서 들이치자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박덕철의 제안이 수용되어, 그날 밤 바로 홍주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39) 洪健, 『洪陽紀事』, 10월 28일조.

드디어 10월 28일 밤(양력 11월 25일) 홍주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홍주성을 포위한 동학농민군은 민가에 몸을 숨기고 총을 쏘아댔다. 그러자 관군은 불화살을 쏘아 민가를 불태우고 대포를 연달아 쏘아 매우 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었다. 이렇게 서로 화포를 쏘며 하룻밤을 격렬하게 싸웠다.<sup>40)</sup> 이날 밤의 상황은 이러하였다.

아군의 대포는 멀리까지 날아가고 일본군이 대포를 잘 쏘아서 반드시 적중하여 조금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으나 저들의 병기는 뛰어나지 못하고 서툰 자들이 쏘고 범도가 없어서 끝내 아군 중에 1명도 해칠 수가 없었다. 또한 성안의 군민은 이미 기율에 익숙하여 밤새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고 닭과 개도 놀라지 않았다.<sup>41)</sup>

홍주성을 경계로 밤새 포격전이 벌어졌으나,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곳곳에 죽은 동학농민군의 모습이 보였다.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하나 둘 대오는 흩어지고 일부 도망하는 동학농민군도 있었다. 서문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농민군들이 포를 쏘곤 하였지만, 화약이 떨어져 힘이 없었다.

관군은 성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으나,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이 제지하였다. 그러자 일부 관군이 성문을 타고 내려가 후퇴하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기도 하고, 홍주 남산 위에 주둔하고 있던 홍주와 대흥 민보군 5, 6천명이 동학농민군들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이렇게 홍주성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틀 동안 성 아래에서 죽은 동학농민군이 대략 600-700명이나 되었다.<sup>42)</sup> 홍주성 전투를 이끈 박인호는 당시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40) 洪健, 『洪陽紀事』, 10월 28일조

41) 洪健, 『洪陽紀事』, 10월 28일조.

42) 洪健, 『洪陽紀事』, 10월 28-29일조;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0일조.

명령을 내려 성을 넘기로 하자 성안에서는 성 밖으로 불을 내어던져서 성 밖에 있는 집들에도 불을 싸질러 놓았소. 그런데 우리는 짚 한 묶음씩 가지고 성 밑으로 가서 그걸 쌓아놓고 성을 넘기로 하였으니 일이 어떻게 되었겠소. 어두운 밤 화광이 충천한 속으로 징을 울리며 성으로 달려 진격하는 우리 동학군들은 쌓아놓은 짚단 위에 불이 당겨 타죽는 사람 넘어가려면 안에서 총으로 맞아 쓰아 죽는 사람-시간은 지나가건만 홍주를 쳐들어가기에 커녕 성내의 사기만 더 북돋게만 하였소. 이리하여 격전에 또 격전이 거듭되고 동학군의 死者가 3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나로서 지금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모한 것이었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오. 날이 밝아오나 결국 홍주 함락은 단념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은 헤어지고 상경하자던 용기까지 무너지고 말았소.<sup>43)</sup>

이렇게 홍주성전투는 최대 6만, 최소 3만명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지만,<sup>44)</sup> 동학농민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내포지역에서 승승장구하던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꺾이고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분수령이 되었다. 더욱이 면천 승전곡전투에서 혼줄이 나서 몸을 사리던 일본군의 사기를 올려준 데다가, 관군과 민보군의 사기마저 올라가 동학농민군에게 치명적이었다.

홍주성에서 후퇴한 동학농민군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채 해미와 면천 쪽으로 나뉘어 갔다.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관망하던 보수 세력들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 앞 다투어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이것은 희망이 넘치던 동학농민군의 세상이 동학농민군에게 죽음의 세상이 된 것이다.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내포 곳곳에서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43) 박인호, 「한말 회고 비담의 기2-갑오동학기병 실담」.

44)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홍주부근 전투상보', 212쪽. 이 자료에 의하면,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 피해는 없었으며, 동학농민군 전사자는 200명, 탄약 소비는 3,139발이었다.

## 나. 홍주성전투 이후 진압군 및 동학농민군 동향

예산 신례원에서 관군을 크게 무찌른 동학농민군의 존재는 정부 진압군에게 큰 위기의식을 주었다. 예산 신례원 소식을 접한 선봉장 이규태는 장위영 부영관 이두황으로 하여금 병정 4개 소대를 인솔하여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10월 27일 공주감영에 와 있던 이두황은 10월 29일 공주감영을 출발하여 예산으로 향하였으나,<sup>45)</sup> 이미 홍주성전투는 끝난 뒤였다.

홍주성전투가 선봉장 이규태에게 알려진 것은 6일 뒤인 11월 4일이었다. 그것도 홍주목사나 충청감사의 정식 보고가 아니라 정보에 근거하였다. 이에 이규태는 이두황으로 하여금 급히 전령을 보내, ‘적의 소굴(전봉준부대)이 논산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 군사를 합쳐 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곧바로 군대를 정산 길로 이동하여 利仁 앞길로 달려가도록 하였다.<sup>46)</sup>

그러나 그 무렵 이두황부대는 11월 4일 온양을 거쳐 신창에 도착한 상태였다. 홍주성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11월 3일 예산에 재집결하고 5일 해미읍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두황부대는 신속히 이인으로 군대를 이동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두황은 먼저 11월 7일 해미읍성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주성전투는 일본군에게도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에 있던 일본군 병참사령부는 충청도에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드높고 홍주지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하에, 11월 3일 1개 중대를 인천에서 아산 뱃편으로 출발시켰다. 이 후원병은 인천항구 수비대 1개 소대와 용산 주재 2개 소대 도합 3개 소대 1중대이며 야마무라(山村) 대위가 인솔하고 있었다. 이 부대가 맡은 임무는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홍주로 전진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이었

45)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4일조.

46) 『先鋒陣日記』, 初四日 傳令 壯衛領官李斗璜, 11월 4일조.

다. 아울러 동학농민군이 강원함경도, 즉 러시아국경 가까운 방향으로 도피하여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쪽으로 격퇴하는 것이었다.<sup>47)</sup>

11월 4일 아산에 도착한 야마무라대위가 정탐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보고 내용은 홍주성전투로 동학농민군이 괴멸되어 아산에서 홍주·공주 사이에 집결해 있는 동학농민군이 없으며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올라갈 염려는 없다는 내용이었다.<sup>48)</sup> 홍주성전투에 대한 첫 보고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홍주성에서 패한 동학농민군 주력군은 10월 29일 해미방면으로 퇴각한 뒤, 11월 3일 예산에 재집결하여 5일 해미읍성을 점령한 상태였다.

동학농민군이 해미읍성을 점령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두황은 11월 7일 새벽에 日落峙를 넘어 해미성을 기습공격하였다. 하루 종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때 윤영렬이 인솔한 천안 의병도 이두황을 도왔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무기마저 버리고 읍성에서 퇴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사살되고 100여 명이 사로잡히는 등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살아남은 동학농민군은 다시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매현(매봉재)에 집결하였다.<sup>49)</sup>

이 소식을 접한 이두황은 11월 8일 저녁 다시 기습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두어 시간쯤 저항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화약을 폭발하여 물러날 수 있었다. 해미의 동학 지도자 김지희를 비롯한 다섯 명이 붙잡혀 처형되었고 대포 1문, 천보총 7정, 조총 7정 등의 무기를 빼앗겨 큰 손실을 입었다.<sup>50)</sup> 예산에서도 민보군이 동학농

47)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홍주동학당 진출과 山村大尉隊 아산 진발', 225쪽.

48)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동학당 토벌 응원중대 보고(제1호)', 232쪽.

49)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3일조; 양호우선봉일기, 11월 7일조.

50) 『兩湖右先鋒日記』, 11월 8일조.

민군을 포위 공격하여, 2명이 죽고 23명이 생포되었다.<sup>51)</sup>

서산 매현에서 전과를 올린 이두황부대는 다시 해미읍성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보낸 뒤 11월 9일 홍주성으로 이동하였다. 이두황은 이와 같은 사실을 11월 9일 선봉진에 보고하였는데, 그 회답에 서산태안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신속히 공주감영을 구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sup>52)</sup> 일본군 아카미쓰(赤松國封)도 “공주가 위급하니 각 진영을 모아 일제히 남적을 토벌하라”라고 지시하여, 이두황은 공주로 행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53)</sup>

그에 따라 이두황은 11월 10일 홍주성 동문을 나와 동쪽으로 행군하는데, 좌우에 있는 민가가 모두 불타 남은 집이 없었을 정도였다.<sup>54)</sup> 이두황부대는 대홍을 거쳐 11월 11일 유구에서 유숙하고, 선봉진에서 밤늦게 보낸 전령에 따라 공주로 가지 않고 정산·논산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sup>55)</sup> 일본군 서로군 지대 역시 10월 25일부터 홍주성에 머물며 진압작전을 펼친 뒤 더 이상 내포지역이 위협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sup>56)</sup> 후원중대만 남겨 놓고 11월 9일 대홍을 거쳐 공주→은진→금산방향으로 진군하였다.<sup>57)</sup>

그에 따라 11월 10일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은 인천에서 파견된 일본군 후원중대와 홍주목사 이승우가 지휘하는 관군 및 민보군이 맡게 되었다. 11월 5일 아산에 도착한 일본군 후원중대는 예산 신례원을 거쳐 11월 7일 홍주에 도착하여, 동학농민군 동정을 정탐하였다. 그의 11월 11일자 정탐보고에 의하면, 홍주를 비롯한 해미 등

51)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5일조.

52) 『兩湖右先鋒日記』, 11월 8일조.

53) 『甲午軍政實記』 2권, 11월 14일조.

54) 『兩湖右先鋒日記』, 11월 10일조.

55) 『兩湖右先鋒日記』, 11월 12일조.

56)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홍주지방 동학도 토벌상황’, 227쪽.

57)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各地 戰鬪詳報 및 東學黨 征討策 實施報告書 送付의 件’, 63-64쪽.

내포지역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미로 파견된 일본군 사이토(齋藤) 소위 역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이 재기병할 염려는 없다고 하면서 해미에서 체포한 동학농민군 2명을 참살하고 48명을 총대로 타살하였다.<sup>58)</sup>

그래서 일본군 후원중대를 이끄는 야마무라대위는 남포 등지에 집합해 있는 동학농민군이 홍주를 습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 데다, 아직 홍주성 안에 처형하지 못한 동학농민군 포로 수백명이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군 사이토소위가 이끄는 1개 소대만을 남겨 놓고 11월 14일 홍주를 출발하였다.

11월 15일 해미에 도착한 일본군 후원중대는 동학농민군 수십명을 체포해 홍주성으로 호송한 뒤 다음날 태안에 도착, 동학농민군 184명을 체포하였다. 일본군은 그 가운데 지도자급 30명을 군민과 체포된 동학농민군을 모아놓고 총 개머리판으로 타살하였다. 이들 후원중대는 11월 18일 덕산을 거쳐 수원을 경유해 11월 23일 인천으로 귀환하였다.<sup>59)</sup>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이후 홍주성 관군과 민보군 활동 역시 뜸하였다. 관군과 민보군이 간간이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였을 뿐이다. 홍주목사 이승우는 11월 20일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163명 가운데, 1명을 효수하고 40명을 총살하고 115명을 석방하였다.<sup>60)</sup> 11월 21일에는 내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인 해미서산태안 민보군이 체포한 131명 가운데, 우두머리 6명을 홍주성 북문 앞에 군인과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하였다.<sup>61)</sup> 11월 23일에는 감옥에 있던 동학농민군 14명을 마지막으로 처형하였다. 이것으로 사실상 내

58)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인참발감제43호 홍주부근 동학당 정도 및 시찰 소견에 관한 山村大尉 보고서본', 237쪽.

59) 국사편찬위원회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인참발감제43호 홍주부근 동학당 정도 및 시찰 소견에 관한 山村大尉 보고서본', 231-239쪽.

60) 洪健, 『洪陽紀事』, 11월 20일조.

61) 『甲午軍政實記』 2권, 12월 2일조.

포지역 동학농민전쟁은 종결되었다. 그래서 11월 30일 홍주목사 이승우는 홍주성 수비를 풀고 남문 밖에서 군사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여는 것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마무리지었다.<sup>62)</sup>

#### 4. 맺음말

이상으로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홍주성 관군 및 정부군일본군의 진압과정을 살펴보았다.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에 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축적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굴된 『甲午軍政實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장위영군을 이끈 죽산부사 이두황은 1894년 10월 21일 있었던 목천 세성산전투 이전의 경우 독자적으로 움직였으나, 그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선봉진의 지휘체계를 따랐다. 정부도 정부군 지휘체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10월 23일 이후 선봉진의 지휘체계를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래서 이두황은 청주병영의 명을 받고 목천 세성산으로 행군하였지만, 세성산전투 이후로는 목천에서 공주 진입, 공주에서 홍주 출정, 홍주에서 은진으로의 이동 등 모두 선봉진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이두황과 선봉진 이규태 사이에 군대 진로와 전략을 둘러싼 약간의 의견차이와 갈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장위영군을 이끌던 이두황은 이규태의 지시에 따라 충남 내포지역으로 움직이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62) 洪健, 『洪陽紀事』, 11월 30일조.

둘째, 청일전쟁의 진원지였던 충남 내포지역은 7월 이후부터 동요하였고 8,9월 이미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상태였다. 이를 우려한 정부와 일본군은 10월 초중순부터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외무대신 김윤식은 두 차례나 일본공사관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일본군 서로중대 지대가 일찍 내포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0월 하순 이후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남북 접 동학농민군이 공주 점령을 위해 북상하면서 일본군은 물론 정부군 역시 병력을 최대한 공주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그 때문에 10월 하순 홍주는 정부와 일본군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었다. 10월 28일 있었던 내포지역 최대 전투였던 홍주성전투가 일본과 조선정부에 보고된 것도 사건 발생 한참 뒤에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두황부대가 공주에서 내포지역으로 출발한 것도 10월 23~26일에 벌어진 이인·효포전투에서 패한 전봉준부대가 논산방면으로 후퇴하여 다소 공주감영이 안정을 되찾은 10월 29일이었고, 야마무라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후원중대가 인천에서 내포지역으로 출발한 것도 홍주성전투가 끝난 11월 3일이었다. 공주에 있던 선봉장 이규태가 홍주성전투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조치를 취한 것도 홍주성전투가 끝난지 5일 뒤인 11월 4일이었다. 이는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농민군 주력군이 공주 방어에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홍주성의 위급함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홍주성전투는 최소 3만에서 최대 6만명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이 관군만을 상대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열기는 급격히 식어갔으며, 일본군·관군·민보군의 동학농민군 수색·체포, 그리고 처형이 뒤따랐다. 심지어 일본군은 11월 11일과 15일 각각 해미와 태안에서 48명과 30명씩 동학농민군을 총 개머리판으로 타살하였고,

홍주목사 이승우는 11월 30일 홍주성 남문 밖에서 큰 잔치를 여는 것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마무리지었다.

[원고투고일: 2017.2.8, 심사수정일: 2017.5.19, 게재확정일: 2017.5.22.]

주제어 : 내포, 동학농민군, 동학농민전쟁, 일본군, 홍주성전투, 이두황, 조선정부군, 홍주목사 이승우, 홍건

<ABSTRACT>

## A Study on the Suppression of Donghak Peasant Army by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and the Japanese Army In Chung Nam Naepo(內浦) Region

Kim, Yang-Sik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y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and the Japanese army in the Chung Nam Naepo region and its peculiarities. Particularly, with the recent discovery of new information in 『Kabogunjeongsilgi(甲午軍政實記)』, it is an attempt to get closer to the truth about the Donghak Peasant War in the Naepo region.

The Donghak Peasant Army had already gained control of the Chung Nam Naepo Region in September 1894. The concerned government and Japanese army, in effect, turned their attention to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Naepo reg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middle of October. However, following the last 10 days in October, the main for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had begun moving north to capture the, Gonju region. Forcing the Japanese army as well as the government to direct their troops to focus on protecting the the Gonju region.

For that reason, The region of Hongju had been dropped off the radar of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and the Japanese army. Japan and the government of Joseon received reports of the greatest battle in the Naepo region, the battle at the castle of Hongju on October 28, much later, than after the event took place. That's why the government forces, led by Lee Du Hwang, arrived at the Naepo region on October 29, when the battle at the castle of Hongju was over, and the Japanese army departed for the Naepo region from Incheon on November 3.

The enthusiasm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Naepo region quickly cooled following the battle at the castle of Hongju. The Japanese army,

The Joseon government army and Minbogun(民堡軍) caught up to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executed them. In fact, the Japanese army shot and killed 48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Haemi on November 11 and killed 30 more members in Taean on November 15. Hongju region governor Lee Seong U concluded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ith a big celebration outside the south gate of the castle of Hongju on November 30.

Keywords : Naepo(內浦), Donghak Peasant Army, Donghak Peasant War, Japanese Army, castle of Hongju(洪州), Lee Doo Hwang(李斗璜), The government forces of Joseon, Honju Moksa(洪州牧使), Lee Seong U(李承宇)